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2 | 계녀가, 상론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에 배우는 「계녀가」와 「상론」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두 작품 모두 '인간의 삶과 태도'를 다루고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가) 「계녀가」는 시집가는 딸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다루고, (나) 「상론」은 관상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비판하며 후천적 노력과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논설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



그렇군요. 「계녀가」에서는 어머니가 딸에게 정말 많은 잔소리를 하던데, 특히 노비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맞아. 특히 노비를 아끼면서도 '명분'을 잃지 말라고 한 점이 중요해. 이는 인간적인 온정을 배풀되 상전으로서의 위계질서는 분명히 하라는 뜻이지. 또 이웃과의 왕래를 조심하고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한 것은 가문의 평판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단다.



네, (가)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라는 내용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나) 「상론」에서 말하는 '상'과 '익히는 것'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관상이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이야. 사람들은 보통 타고난 생김새(상)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잖아?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익히느냐(습관)'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결국 '상'까지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2 | 계녀가, 상론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아해야 들어 봐라 내일이 신행이라(결혼하여 집을 떠나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복잡하고 안타까운 심정.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당부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음 어떡하며 이 심사 갈밭 없다
우마에 짐을 싣고 금반을 굳게 매어
친정을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
부모께 떠날 적에 경계할 말 많고 많다
문밖에 사관할 제 세수를 일찍 하고
문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방이나 덤사온가 잠이나 편하신가(시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고 문안하는 며느리로서의 효행과 예절)

살뜰히 물을 적에 저근덧 앉았다가
가만히 돌아 나와 **진지를 차릴 적에**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하고(시부모님의 식성을 고려하여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며느리의 봉양 태도)

끓어얹아 진지하고 식상을 물린 후에
할 일을 사뢰 보아 다른 일 없다시면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빠 들어

흥돈흥돈 하지 말고 자낙자낙 하여서라(경망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침착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라는 행동거지에 대한

당부)

(중략)

두세 살 먹은 후에 지각이 들거들랑
장난을 절금하고 음식을 존절하고
명주옷 입게 말고 새 소음 놓지 말고
썩은 음식 주지 말고 상한 고기 먹지 말고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고
밋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

[맹자의 어마임도 맹자를 기르실 제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사시고]([]: 맹자 어머니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녀 교육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

함.)

이웃에 돼지 잡거늘 너 먹인다 속이시고
도로혀 후회하여 사다가 먹이신다
너희도 이것 보와 속이지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노비는 수족이라 수족 없이 어이 살며
더위에 농사지어 상전을 봉양하며
추위에 물을 끼려 상전을 공양함]

그 아니 불쌍하며 그 아니 귀할손가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 노비를 자신의 손발처럼 소중히 여기고, 신분은 다르나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긍정적 인식. **작품의 내용을 감상하는 문제에서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에는 신분적 위계보다 인간적 평등함을 우선하여 노비를 동일한 위치의 가족처럼 대우하라는 파격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비를 아끼되 상전으로서의 위엄과 명분을 지키라고 한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꾸짖어도 악언 말고 치나마 과장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노비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되, 상전과 하인의 신분적 질서와 위계는 분명히 지켜야 함.)

나이 많은 종이거든 언어를 삼가고

어린 종이거든 자식같이 길러서라

제때에 해 입히고 배꿍게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제가를 하온 후에 치산을 하여서라(집안의 기강을 먼저 바로잡은(제가) 뒤에 재산을 관리(치산)해야 한다는 가사 관리의 우선순위)

곡식이 많으나마 입치레하지 말고

포백이 많으나마 몸치장하지 말고

헌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어서라(살림을 맡은 주부로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집 안은 자주 쓸되 문지 않게 말아서라

기명을 알아 놓아 닭과 개가 깨게 말아

[이웃을 왕래할 제 무름을 쓰고 가고

급한 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래 말고]([]: **화자가 제시한 행동 지침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사회생활: 이웃과의 왕래는 되도록 밤을 이용해 남들의 눈을 피하고, 급한 일이 아니면 출입을 삼가야 한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한 일이 아니면 밤에 다니지 말라는 의미를 ‘밤을 이용하라’는 의미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하여서라

웃음을 꺾이하여 이뿌리 나게 말고(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예의를 지키고, 경박하게 웃지 않도록 몸가짐을 경계해야 함.)

옷귀를 매게 하여 속옷을 나게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집 내지 말아

인물을 평론 말고 양반을 고하지 말고

부귀를 흠선 말고 음식을 욕심 말아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남의 집 처음 갈 때는 조심이 많건마는

세월이 많아가면 흘만키기 쉬우려니

처음의 가진 마음 늪도록 변치 마라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대강으로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하니(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현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를 종합하여 딸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

이 책을 잃지 말고 시시로 내어 보며

행신과 처세할 제 유익하게 되었으라

그밖에 경계할 말 무수히 있다만은

정신이 아득하여 이만하여 그치노라

- 작자 미상, 「계녀가」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2 | 계녀가, 상문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해야 들어 봐라 내일이 신행이라
네 마음 어떠하며 이 심사 갈발 없다
우마에 짐을 싣고 금반을 굳게 매어
친정을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
부모께 떠날 적에 경계할 말 많고 많다
문밖에 사관할 제 세수를 일찍 하고
문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방이나 덤사온가 잠이나 편하신가
살뜰히 물을 적에 저근덧 앉았다가
가만히 돌아 나와 진지를 차릴 적에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하고
끓어앉아 진지하고 식상을 물린 후에
할 일을 사뢰 보아 다른 일 없다시면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빠 들어
흥돈흥돈 하지 말고 자낙자낙 하여서라
(중략)
두세 살 먹은 후에 지각이 들거들랑
장난을 절금하고 음식을 존절하고
명주옷 입게 말고 새 소음 놓지 말고
썩은 음식 주지 말고 상한 고기 먹지 말고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고
밋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
맹자의 어마임도 맹자를 기르실 제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사시고
이웃에 돼지 잡거늘 너 먹인다 속이시고
도로혀 후회하여 사다가 먹이신다
너희도 이것 보와 속이지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노비는 수족이라 수족 없이 어이 살며
더위에 농사지어 상전을 봉양하며
추위에 물을 끼려 상전을 공양함이
그 아니 불쌍하며 그 아니 귀할손가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
꾸짖어도 악언 말고 치나마 과장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

나이 많은 종이거든 언어를 삼가고
어린 종이거든 자식같이 길러서라
제때에 해 입히고 배꿍게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제가를 하온 후에 치산을 하여서라
곡식이 많으나마 입치레하지 말고
포백이 많으나마 몸치장하지 말고
헌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어서라
집 안은 자주 쓸되 문지 않게 말아서라
기명을 알아 놓아 닭과 개가 깨게 말아
이웃을 왕래할 제 무름을 쓰고 가고
급한 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래 말고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하여서라
웃음을 과이하어 이뿌리 나게 말고
옷귀를 매게 하여 속옷을 나게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집 내지 말아
인물을 평론 말고 양반을 고하지 말고
부귀를 흠선 말고 음식을 욕심 말아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남의 집 처음 갈 때는 조심이 많건마는
세월이 많아가면 홀만키기 쉬우러니
처음의 가진 마음 늙도록 변치 마라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대강으로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하니
이 책을 잃지 말고 시시로 내어 보며
행신과 처세할 제 유익하게 되었으라
그밖에 경계할 말 무수히 있다만은
정신이 아득하여 이만하여 그치노라

- 작자 미상, 「계녀가」

(나)

상(相)은 익히는 것으로 인하여 변하고, 형세는 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형국(形局)이다 유년(流年)이다의 설(說)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아주 어린 아이가 배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길 적에 그 용모를 보면 예뻐 뿐이다. 하지만 그가 장성해서는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지고,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짐

으로써 상도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

서당(書堂)의 무리는 그 상이 아름답고, 시장(市場)의 무리는 그 상이 검고, 목동(牧童)의 무리는 그 상이 산란(散亂)하고,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는 그 상이 사납고 약빠르다. 대체로 그 익히는 것이 오래 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로 옮겨 가게 되니,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이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 하니, 아, 그것은 틀린 말이다.

대저 학문을 익힌 사람은 사리를 통달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이(利)를 익힌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고, 힘을 익힌 사람은 비천한 일에 몸을 마치고, 악(惡)을 익힌 사람은 패망(敗亡)한 데 몸을 마치게 되니, 익힘과 효과가 아울러 진보(進步)함으로써 효과와 상이 모두 변하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상의 변하는 것을 보고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다.’ 하니, 아,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의 눈동자가 빛나면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서적(書籍)을 사들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스승을 정하게 되고, 스승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 하여, 그 아이에게 붓·먹·연분·서판을 더욱더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 대부(大夫)는 이 사람을 천거하기를 ‘이 사람은 쓸 만합니다.’ 하고, 임금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풍만하게 생겼으면 아이의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자가 될 만하다.’ 하여, 재산을 더욱더 주고, 부인(富人)은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릴 만하다.’ 하여, 자본을 더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닌다. 그러면 부인은 그가 상업을 부흥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주인으로 삼으니 잘될 사람을 더욱 도와주어 조금 뒤에는 백만장자가 되어 버린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미모가 더부룩하고, 또 어떤 아이는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났으면, 그 아이의 부모와 사장(師長)들은 양성(養成)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하니, 이들이 어찌 자기 몸을 귀하고 부(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그 상으로 인하여 그 형세를 이루고, 그 형세로 인하여 그 상을 이루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상의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이론 것이 저와 같다.’ 하니, 아, 어쩌면 그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세상에는 진실로 재덕(才德)을 충분히 간직하고도 액궁(厄窮)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다라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것이요, 이해에 밝고 귀천에 밝았는데도 종신토록 곤궁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 역시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자본을 대 주었다라면 또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물며 거친 기질(氣質)을 변화시키고, 봉양(奉養)은 신체를 변화시키며, 부귀는 그 뜻을 음란하게 하고, 우환(憂患)은 그 마음을 슬프게 하여 아침에는 무성하다가 저녁에는 시들게 된 사람도 있고, 어제는 초취했다가 오늘은 살쥘서 운택해진 사람도 있게 되니, 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사서인(士庶人)이 상을 믿으면 직업을 잃게 되고, 경대부(卿大夫)가 상을 믿으면 그 친구를 잃게 되고, 임금이 상을 믿으면 신하를 잃게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용모로써 사람을 취했다라면 자우에게 실수할 뻔했다.”

하였으니, 참으로 성인(聖人)이다.

- 정약용, 「상론」

1.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당부하고 있다.
- ③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의 형식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가 처한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계녀가」는 조선 후기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다양한 역할을 규범화하여 제시한 규방 가사이다. 이 작품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도,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봉양하는 도리, 안주인으로서 하인을 부리는 법, 그리고 가난을 대비한 처산(治産)의 덕목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딸이 시가(媳家)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①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하고’에는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섬세하게 봉양해야 한다는 규범이 나타나 있다.
- ②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에는 신분적 위계보다 인간적 평등함을 우선하여 노비를 동일한 위치의 가족처럼 대우하라는 파격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에는 노비를 대할 때 온정은 베풀되 상전으로서의 위엄과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안주인의 역할이 나타나 있다.
- ④ ‘헌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어서라’에는 살림을 맡은 주체로서 검소하게 생활하며 집안 살림을 관리해야 한다는 처산의 덕목이 나타나 있다.
- ⑤ ‘처음의 가진 마음 늙도록 변치 마라’에는 시집살이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 초의 다짐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나타나 있다.

3. (가)의 ‘아해’가 지켜야 할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생활: 비록 곡식과 포백이 넉넉하더라도 사치하지 말고 헌 옷을 기워 입으며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
- ② 식생활: 음식을 탐하지 말고 거친 음식을 먹되,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할 때는 더욱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 ③ 언어생활: 남의 말을 옮기거나 인물을 평론하는 것을 삼가고, 웃음을 과하게 하여 잇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사회생활: 이웃과의 왕래는 되도록 밤을 이용해 남들의 눈을 피하고, 급한 일이 아니면 출입을 삼가야 한다.
- ⑤ 가정생활: 자녀가 장난을 치거나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엄격히 가르치고, 노비를 부릴 때는 위엄을 잃지 말아야 한다.

4. (나)의 글쓴이가 [A]~[C]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고난 외모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 ② 타인의 평가는 주관적이므로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지닌 내면의 진실성을 보아야 한다.
- ③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지원이 달라짐에 따라 사람의 성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보다는 아이가 타고난 천성과 기질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 ⑤ 경제적 부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사회적 지위는 타고난 관상에 의해 결정된다.

5. (나)에 드러난 글쓴이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인 무리를 예로 들어 환경과 습관이 외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한 후 그 인과 관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관상에 얽매이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나열하여 타고난 운명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과정을 예찬하고 있다.

6. (나)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만, 외모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 ② 사회적 성공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관상과 그에 따른 주변의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
- ③ 외면과 내면은 상호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외면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를 이끈다.
- ④ 특정 직업이나 환경에 오래 속하게 되면 그 집단의 특성이 습관화되어 외모에 반영된다.
- ⑤ 성인(聖人)은 관상을 통해 사람의 재덕을 꿰뚫어 볼 수 있으나, 범인은 겉모습에 현혹되기 쉽다.

7.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나)는 타인의 평가에 부응하는 삶을 강조한다.
- ② (가)는 경제적 빈곤을, (나)는 정신적 빈곤을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로 꼽고 있다.
- ③ (가)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④ (가)는 규범의 준수를 통해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나)는 본질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한다.

- ⑤ (가)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희생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나)는 남성 중심 사회의 모순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고난도 8. <보기>는 (가)와 (나)의 교육관을 비교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작품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간의 발달에 대해 (가)는 ‘바람직한 행위의 반복을 통한 사회화’를 강조하고, (나)는 ‘환경과 경험의 누적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주목한다. (가)의 화자는 피교육자가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Model)’을 모방하고 실천함으로써 이상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낙인(Label)’이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며, 결과적으로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쌓아온 ‘익힘(Learning)’의 과정이 인간을 형성한다고 본다.

- ① (가)에서 ‘맹자의 어마임’을 언급하며 ‘이것 보와 속이지 말’라고 한 것은, 피교육자가 따라야 할 바람직한 ‘모범’을 제시하여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 ② (가)에서 ‘옛글에 있는 말’을 ‘시시로 내어 보’라고 한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천하여 이상적인 구성원이 되게 하려는 의도이다.
- ③ (나)에서 ‘서당의 무리’와 ‘시장의 무리’의 상이 다르다는 것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경험의 누적’이 외모나 성품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 ④ (나)에서 ‘눈동자가 빛나’는 아이가 결국 ‘재상’이 되는 과정은, 긍정적인 기대가 주위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 ⑤ (나)에서 ‘어제는 초췌했다가 오늘은 살쥘서 윤택해진 사람’을 언급한 것은, ‘익힘’의 과정 없이도 우연한 계기로 인해 인간의 본질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외적 사례이다.

9. (가)와 (나)에 나타난 '타인'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타인을 경계와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거리를 둘 것을 강조하며, (나)는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우위를 점할 것을 강조한다.
- ② (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는 태도를 보이며, (나)는 타인의 평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가)는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말 것을 권하고, (나)는 타인과의 융화를 위해 자신의 개성을 감출 것을 권한다.
- ④ (가)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포용적인 자세를 중시하고, (나)는 타인의 장점을 본받아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세를 중시한다.
- ⑤ (가)는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 덕을 쌓을 것을 당부하고, (나)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것을 당부한다.

[10~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야해야 들어 보라 내일이 신행이라
 네 마음 어떡하며 ㉠이 심사 갈발 없다
 우마에 짐을 싣고 금반을 굳게 매어
 친정을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
 부모께 떠날 적에 경계할 말 많고 많다
 문밖에 사관할 제 세수를 일찍 하고
 문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방이나 덤사온가 잠이나 편하신가
 살뜰히 물을 적에 저근덧 앉았다가
 가만히 돌아 나와 진지를 차릴 적에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하고
 끓어앉아 진지하고 식상을 물린 후에
 할 일을 사뢰 보아 다른 일 없다시면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빠 들어
 ㉡흥돈흥돈 하지 말고 자낙자낙 하여서라
 (중략)
 두세 살 먹은 후에 지각이 들거들랑
 장난을 절금하고 음식을 존절하고
 명주옷 입게 말고 새 소음 놓지 말고

씩은 음식 주지 말고 상한 고기 먹지 말고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고
 밍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
 맹자의 어마임도 맹자를 기르실 제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사시고
 이웃에 돼지 잡거늘 너 먹인다 속이시고
 도로혀 후회하여 사다가 먹이신다
 너희도 이것 보와 속이지 말아서라
 야해야 들어 보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노비는 수족이라 수족 없이 어이 살며
 더위에 농사지어 상전을 봉양하며
 추위에 물을 끼려 상전을 공양함이
 그 아니 불쌍하며 그 아니 귀할손가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
 꾸짖어도 악언 말고 치나마 과장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
 나이 많은 종이거든 언어를 삼가고
 어린 종이거든 자식같이 길러서라
 제때에 해 입히고 배꿍게 말아서라
 야해야 들어 보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제가를 하온 후에 치산을 하여서라
 곡식이 많으나마 입치레하지 말고
 포백이 많으나마 몸치장하지 말고
 현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어서라
 집 안은 자주 쓸되 문지 얇게 말아서라
 기명을 알아 놓아 닭과 개가 깨게 말아
 이웃을 왕래할 제 무름을 쓰고 가고
 급한 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래 말고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하여서라
 웃음을 과이하어 이뿌리 나게 말고
 옷귀를 매게 하여 속옷을 나게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집 내지 말아
 인물을 평론 말고 양반을 고하지 말고
 부귀를 흠선 말고 음식을 욕심 말아
 야해야 들어 보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남의 집 처음 갈 때는 조심이 많건마는
 세월이 많아가면 홀만키기 쉬우려니
 처음의 가진 마음 늙도록 변치 마라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대강으로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하니
 이 책을 잃지 말고 시시로 내어 보며
 행신과 처세할 제 유익하게 되었으라
 그밖에 경계할 말 무수히 있다만은

정신이 아득하여 이만하여 그치노라
- 작자 미상, 「계녀가」

(나)

상(相)은 익히는 것으로 인하여 변하고, 형세는 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형국(形局)이다 유년(流年)이다의 설(說)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아주 어린 아이가 배를 땅에 대고 영금영금 길 적에 그 용모를 보면 예뻐 뿐이다. 하지만 그가 장성해서는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지고,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짐으로써 상도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

서당(書堂)의 무리는 그 상이 아름답고, 시장(市場)의 무리는 그 상이 검고, 목동(牧童)의 무리는 그 상이 산란(散亂)하고,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는 그 상이 사납고 약빠르다. 대체로 그 익히는 것이 오래 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로 옮겨 가게 되니,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이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 하니, 아, 그것은 틀린 말이다.

대저 학문을 익힌 사람은 사리를 통달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이(利)를 익힌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고, 힘을 익힌 사람은 비천한 일에 몸을 마치고, 악(惡)을 익힌 사람은 패망(敗亡)한 데 몸을 마치게 되니, 익힘과 효과가 아울러 진보(進步)함으로써 효과와 상이 모두 변하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상의 변하는 것을 보고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다.’ 하니, 아,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의 눈동자가 빛나면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서적(書籍)을 사들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스승을 정하게 되고, 스승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 하여, 그 아이에게 붓·먹·연분·서판을 더욱더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 대부(大夫)는 이 사람을 천거하기를 ‘이 사람은 쓸 만합니다.’ 하고, 임금은 그 사람을 보고 이르기를 ‘이 사람은 대우할 만하다.’ 하여, 그를 권장하고 추켜세우고 칭찬하고 선발하여 이극고 재상(宰相)에 이르게 된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풍만하게 생겼으면 아

이의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자가 될 만하다.’ 하여, 재산을 더욱더 주고, 부인(富人)은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릴 만하다.’ 하여, 자본을 더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닌다. 그러면 부인은 그가 상업을 부흥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주인으로 삼으니 잘될 사람을 더욱 도와주어 조금 뒤에는 백만장자가 되어 버린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미모가 더부룩하고, 또 어떤 아이는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났으면, 그 아이의 부모와 사장(師長)들은 양성(養成)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하니, 이들이 어찌 자기 몸을 귀하고 부(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그 상으로 인하여 그 형세를 이루고, 그 형세로 인하여 그 상을 이루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상의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이론 것이 저와 같다.’ 하니, 아, 어쩌면 그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세상에는 진실로 재덕(才德)을 충분히 간직하고도 액궁(厄窮)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다라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것이요, 이해에 밝고 귀천에 밝았는데도 종신토록 곤궁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 역시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자본을 대 주었다라면 또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물며 거친 기질(氣質)을 변화시키고, 봉양(奉養)은 신체를 변화시키며, 부귀는 그 뜻을 음란하게 하고, 우환(憂患)은 그 마음을 슬프게 하여 아침에는 무성하다가 저녁에는 시들게 된 사람도 있고, 어제는 초취했다가 오늘은 살찌서 윤택해진 사람도 있게 되니, 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사서인(士庶人)이 상을 믿으면 직업을 잃게 되고, 경대부(卿大夫)가 상을 믿으면 그 친구를 잃게 되고, 임금이 상을 믿으면 신하를 잃게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용모로써 사람을 취했다라면 자우에게 실수할 뻔했다.”

하였으니, 참으로 성인(聖人)이다.

- 정약용, 「상론」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시대 규방 가사는 여성들의 규범을 다루면서도, 그 이면에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가문의 번영과 화목을 주도해야 했던 여성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깔려 있다. 화자는 딸에게 ‘참음’과 ‘조심’을 강조하지만, 이는 단순한 억압의 수용이 아니라 가문의 경제적 관리(치산)와 인간관계의 조율(제가)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능동적인 생존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화자가 ‘이웃에 돼지 잡거늘 너 먹인다 속이시고’라는 맹자 어머니의 일화를 인용한 것은,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는 때로 임기응변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 ② 화자가 ‘곡식이 많으나마 입치레하지 말고’라고 한 것은, 경제적 잉여가 있더라도 이를 소비하기보다 축적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관리 전략이다.
- ③ 화자가 ‘처음의 가진 마음 늙도록 번치 마라’고 한 것은, 결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④ 화자가 ‘남의 집 내지 말아’라고 한 것은, 타인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가풍을 확립하려는 의도이다.
- ⑤ 화자가 ‘친정을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라고 한 것은, 출가외인으로서 친정과의 인연을 끊고 시댁의 일원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운명을 한탄한 것이다.

11. (가)의 ‘어머니’가 딸에게 당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부모 봉양: 잠자리를 살뜰히 살피고 식성을 물어 입맛에 맞게 반찬을 준비하는 등 정성을 다해야 한다.
- ② 자녀 양육: 아이를 가르칠 때 맹자의 어머니를 본받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 ③ 하인 통솔: 노비를 가족처럼 아끼되, 잘못했을 때는 위엄을 잃지 말고 명분을 밝혀 기강을 세워야 한다.
- ④ 가계 운영: 곡식과 옷감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경계하고, 헨 옷을 기워 입으며 검소함을 생활화해야 한다.
- ⑤ 이웃 교류: 이웃 간의 왕래는 정의를 돈독히 하는 일이므로, 닭이나 개가 짖어 시끄럽더라도 자주 찾아가 친분을 쌓아야 한다.

12.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딸이 시집가서 겪을 고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 ② ㉡: 행동이 굼뜨고 느린 것을 경계하며 빠릿빠릿하게 일하라는 재촉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 맹자의 어머니가 학교 근처로 이사한 것은 이웃의 소음 공해를 피하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한다.
- ④ ㉣: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선물을 챙겨 가라는 예절을 의미한다.
- ⑤ ㉤: 책에 적힌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직접 겪은 세속적인 경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강조한다.

고난도 13. <보기>의 ㉓에 들어갈 말로, (나)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재구성한 내용은?

— <보기> —

선생님: 정약용은 「상론」에서 관상에 의존하는 당시의 풍토를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할 관상’이 따로 있다고 믿지만, 정약용은 이를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지적했지요. 만약 오늘날의 관점에서 정약용의 논리를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나 ‘간판 위주’의 채용 문화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 네, 사람들이 명문대 졸업장이나 화려한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단정 짓는 상황을 빗대어 볼 때, 정약용의 논리에 따르면 (㉓)

- ① 좋은 스펙은 개인이 성실하게 ‘익힌’ 노력의 산물이므로,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공자의 태도처럼 지혜로운 일입니다.
- ② 스펙이 좋은 사람은 주위의 기대를 받아 능력이 계발된 경우이므로,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③ 사람들은 간판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 ④ 화려한 스펙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중시하는 것이니, 이는 타고난 관상을 중시하여 인재를 놓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 ⑤ 글쓴이는 ‘익히는 것’이 오래되면 ‘상’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현재의 스펙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을 게을리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익힘’을 강조한 글쓴이의 논리에 부합합니다.

14. (나)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 습관/환경 (익히는 것)
 [B] 성품/마음 (내면)
 [C] 관상/용모 (외면)
 [D] 사회적 결과 (성공/실패)

- ① 글쓴이는 사람들이 흔히 [C]가 [A]를 결정한다고 믿는 통념을 비판한다.
- ② ‘서당의 무리’와 ‘시장의 무리’의 상이 다른 것은 [A]가 다르면 [C]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 ③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라는 구절은 [B]가 [C]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 ④ ‘얼굴이 풍만하게 생긴’ 아이가 부자가 된 사례는, [C]에 대한 주위의 믿음이 [A]를 강화하여 [D]를 이끌어낸 경우이다.
- ⑤ 글쓴이는 궁극적으로 [C]를 바꾸기 위해서는 [D]를 먼저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 (나)의 관점에서 <보기>의 현상을 분석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심리학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큰 기대를 걸면 학생의 지능이나 태도가 실제로 향상되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반대로, 어떤 학생을 ‘문제아’라고 낙인찍으면 주변의 부정적 대우로 인해 실제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현상을 ‘낙인 효과’라고 한다.

- ①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고난 관상이 좋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군.

- ② 낙인 효과는 나쁜 관상을 가진 사람은 악을 익히기 쉬운 본성을 타고난다는 운명론적 사고를 뒷받침하는군.
- ③ 두 효과는 모두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평가와 대우'라는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익힘'과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군.
- ④ 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내면)이 외모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낙인 효과는 부정적인 외모가 내면을 타락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는군.
- ⑤ 두 효과는 상(相)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한다는 점에서는 글쓴이와 같은 의견이지만, 결과의 원인을 본인의 노력이 아닌 타인에게 돌린다는 점에서는 글쓴이와 대치되는군.

려는 규범적 수양의 일환이다.

- ② (나)에서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로 옮겨 가게' 된다는 것은, 반복된 습관이 인간의 내면적 본질뿐만 아니라 기질까지 변화시킨다는 기질 변화론과 통한다.
- ③ (가)의 '맹자의 어마임'과 (나)의 '아이의 부모와 사장'은 모두 피교육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규범을 제시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가)에서 '천성도 고치거던 허물이야 짓겠느냐'라고 한 것과 (나)에서 '거친 기질을 변화시키고'라고 한 것은 후천적 노력으로 타고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인식을 보여준다.
- ⑤ (가)는 외부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아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나 '타고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통합적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교적 세계관에서 '수양(修養)'은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핵심 기제이다. (가)는 규범적 수양론에 입각하여, 정해진 예법과 도리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기질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교정하려 한다. 여기서 외부의 규범은 내면을 통제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반면 (나)는 기질 변화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습관과 환경의 누적이 인간의 물리적 형상(기질)까지 변화시킨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정된 운명보다 가변적인 변화의 가능성이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이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흥돈흥돈 하지 말고 자낙자낙 하여서라'고 당부하는 것은, 충동적인 기질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양식을 체화하게 하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화자는 ‘아해’라는 구체적인 청자를 호명하며 시집가는 딸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을 하나 하나 가르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를 당부하는 것이다.

① 작품에는 계절적 배경이나 그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하여서라’, ‘말아라’ 등의 명령형 어미는 사용되었으나 청유형 어미는 주된 특징이 아니며 현실 저항 의지와도 관련이 없다.

④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므로 대화의 형식이 아니며, 갈등 해소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외로움을 부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정답 ②

화자는 노비를 혈육처럼 여기라고 하면서도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고 하였으므로 신분적 위계보다 인간적 평등함을 우선하여 동일한 위치로 파악적으로 대우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① 시부모의 식성을 고려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봉양의 구체적 규범에 해당한다.

③ 노비에게 약한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명분을 세우라는 것은 위엄과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이다.

④ 헌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절약을 통해 집안 경제를 관리하는 처사의 태도이다.

⑤ 세월이 흘러 마음이 해이해질 것을 경계하며 초심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3. 정답 ④

화자는 이웃을 왕래할 때 ‘무름을 쓰고 가고 급한 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래 말고’라고 하였다, 이는 밤늦은 시각의 외출을 삼가라는 의미이지 남들의 눈을 피해 밤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① ‘포백이 많으나 몸치장하지 말고 헌 의복 기워 입’이라고 한 것에서 검소한 의생활을 강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② ‘잡음식 먹어서라’, ‘음식을 욕심 말아’라고 한 것에서 식탐을 경계하고 소박한 식생활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남의 말 하지 말고’, ‘인물을 평론 말고’, ‘웃음을 과이하여 이뿌리 나게 말고’라고 한 것에서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장난을 절금하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고 한 것에서 자녀 교육의 엄격함과 노비 관리에서의 위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답 ③

글쓰이는 아이의 관상에 대한 주위의 평가에 따라 부모와 스승의 지원이 달라지고 그 결과 아이의 인생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 주며 환경과 기대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① 글쓰이는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과 환경에 의해 변한다고 주장하므로 타고난 외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글의 요지와 반대된다.

② **[매력적인 오답]** [A]~[C]는 타인의 평가가 결과적으로 아이의 인생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이지 내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맥락은 아니다.

④ 사례들은 부모와 스승, 부인(富人) 등의 외부적 지원과 기대가 아이를 변화시켰음을 보여 주므로 타고난 천성을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

⑤ [A]는 재상, [B]는 부자가 되는 사례로 둘 다 주위의 반응에 따른 결과이지 관상에 의해 결정된 운명은 아니다.

5. 정답 ⑤

글쓰이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함이지, 역사적 인물이 운명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과정을 나열하여 예찬한 것은 아니다.

① 서당, 시장, 목동, 강패의 무리를 대조하여 익히는 것에 따라 상이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② 공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용모로만 사람을 취했을 때의 실수를 언급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사람들이 상을 보고 익히는 것을 판단하는 통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틀린 말이라며 인과 관계의 오

류를 지적하고 있다.

④ ‘그 아니 어리석단 말인가’, ‘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6. [정답] ④

글쓰이는 서당, 시장, 목동 등 무리가 나누어짐에 따라 익히는 것이 달라지고, 그 익히는 것이 오래되면 성품과 마음이 변하여 결국 상(외모)까지 변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환경과 습관이 외모에 반영된다는 관점이다.

① 글쓰이는 익히는 것(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날로 옮겨 간다고 하였으므로, 성품 또한 후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② 글쓰이는 사례를 통해 주변의 평가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상에 얽매어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③ 글쓰이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 상이 변한다고 하였으므로,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를 이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매력적인 오답]** 글쓰이는 공자조차도 용모로 사람을 취했다면 실수할 뻔했다고 말한 사례를 인용하여, 성인이라 할지라도 외모만으로는 사람을 완벽히 판단하기 어려움을 역설하고 있다.

7. [정답] ④

(가)는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범을 통해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며, (나)는 외모라는 껍데기가 아닌 습관과 환경이라는 본질을 통찰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오류를 지적한다.

① (가)는 남의 집에서의 처신을 조심하라고 하며 타인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나)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타인의 평가에 부응하는 삶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② (가)는 빈곤보다는 예절과 행실을 강조하며, (나)는 판단의 착오를 경계할 뿐 빈곤 자체를 핵심 경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가)에서도 ‘흥돈흥돈 하지 말고’ 등 행동거지를 교정하라고 하므로 후천적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하

다고 전제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을 뿐 희생을 비판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 역시 남성 중심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8. [정답] ⑤

(나)에서 초췌했다가 운택해진 사람의 예시는 거친 기질의 변화나 봉양, 우환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해 상이 수시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억힘’이나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맥락이지 우연에 의한 본질 변화나, 그것이 예외적 사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① 자녀 교육에 있어 어머니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사례로 맹자 어머니의 고사를 제시하며 피교육자가 따라야 할 올바른 태도를 알려주고 있다.

② 책에 기록된 옛글과 세정의 일을 수시로 보는 것은 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의미한다.

③ 무리에 따라 상이 다르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과 반복된 행동이 인간의 외모나 성품을 형성한다는 작가의 관점이 드러난다.

④ 눈동자가 빛난다는 이유로 기대를 받고 지원을 받아 성공한 것은 타인의 긍정적 기대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9. [정답] ②

(가)는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하고 ‘남의 말 하지 말고’라며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의식해 행동을 조심할 것을 강조한다, (나)는 주위 사람들이 ‘가르칠 만하다’, ‘부자가 될 만하다’고 평가하면 그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변하게 된다는 점을 통해 타인의 평가가 지닌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다.

① (가)는 조심하라고 했을 뿐 불신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나)는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관상으로 판단하는 것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다.

③ (가)는 ‘참기를 위주하고’라며 인내를 강조하고, (나)는 개성을 감추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는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고 했지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나)는 타인을 본받는 것보다 타인을 판단하

는 기준에 대해 논하고 있다.

⑤ (가)는 검소함을 강조했지 배움을 주된 덕목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나)는 타인의 도움(부모, 스승의 지원)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0. [정답] ②

화자가 곡식이 넉넉함에도 사치하지 말고 절약하려고 한 것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 가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려는 주체적인 책임 의식이 반영된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① 맹자 어머니의 일화 중 ‘속이지 말아서라’는 거짓 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임기응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③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은 시집살이의 자세와 규범을 늙어서까지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의미로, 남편에 대한 사랑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④ ‘남의 집 내지 말아’는 남의 집안 사정을 밖에 퍼뜨리지 말라는 입단속의 의미이지, 외부와의 교류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⑤ **[매력적인 오답]** 시가로 들어가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결혼이라는 현실적 변화를 서술한 것일 뿐, 친정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비관적 한탄이 담긴 것은 아니다.

11. [정답] ⑤

(가)에서 화자는 이웃과의 교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급한 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래 말고’,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하셔서라’라고 하며, 잦은 왕래보다는 신중한 처신을 강조한다. 또한 ‘닭과 개가 깨게 말아’라는 구절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이지, 시끄러움을 감수하고 친분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① ‘방이나 덩사온가’, ‘식성을 물어 가며’ 등에서 시부모의 의식주를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② 맹자 어머니의 일화를 들며 자녀를 가르칠 때 본받아야 할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노비를 가족처럼 아끼되, ‘꾸짖어도 악언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라고 하며 온정과 위엄의 조화를 당부하고 있다.

④ ‘곡식이 많으나마 입치레하지 말고’, ‘헌 의복 기워 입고’ 등에서 부유함에도 검소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12. [정답] ①

‘갈발 없다’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뜻으로, 내일 시집가는 딸을 두고 걱정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경을 잘 보여준다.

② ‘흥돈흥돈’은 들뜨거나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고, ‘자낙자낙’은 조용하고 침착한 모양을 뜻한다. 따라서 경망스럽지 말고 침착하라는 의미이지, 빨리 일하라는 뜻이 아니다.

③ ‘학교 곁에 사시고’는 맹모삼천지교의 고사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지 소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④ ‘남의 집 내지 말아’는 그 집안의 내밀한 사정이나 흥을 밖으로 퍼뜨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⑤ ‘옛글’(이론/규범)과 ‘세정에 담은 일’(경험/현실)을 모두 활용하여 가르친다는 뜻이지, 경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

13. [정답] ③

(나)는 사람들이 ‘억힘(원인) → 상(결과)’의 인과관계를 ‘상(원인) → 성품(결과)’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학벌주의에 적용하면, 사람들은 간판을 보고(원인이라 착각) 능력이 뛰어나다고(결과라 착각) 판단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나)에서 공자는 “용모로써 사람을 취했다라면 자우에게 실수할 뻔했다”고 하며 외양으로 내면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스펙으로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을 공자의 태도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정약용은 상에 의존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비판했지 옹호하지 않았다.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관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태를 비판한 작가의 의도와 상반된다.

④ <보기>에 따르면 스펙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타고난 관상을 중시하여 인재를 놓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지양해야 할 방법이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관상이 나쁜 아이가 실패하는

이유가 본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부모와 사장들이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반대로' 했기 때문(환경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즉, 결과(상/스펙)가 나쁜 것을 두고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익힘의 부재)으로만 돌려 평가하는 것은, 글쓰이가 비판하고자 했던 '사회적 편견에 의한 기회의 박탈'을 간과하는 것이므로 글쓰이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정답 ⑤

(나)의 글쓰이는 상(C)은 익히는 것(A)과 마음(B)에 의해 변한다고 주장한다. 즉, 좋은 습관과 노력을 통해 내면을 닦으면 관상도 변한다는 것이지, 사회적 성공(D)을 먼저 성취해야 관상이 바뀐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으며 글의 요지와도 다르다.

- ① 사람들은 "상(C)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익히는 것(A)이 저와 같다"고 말하는데, 글쓰이는 이를 '틀린 말'이라고 비판한다.
- ② 무리(환경)에 따라 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A]가 [C]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 ③ 성품이 옮겨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내면(B)이 외면(C)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 ④ 얼굴이 풍만하다(C)는 이유로 부모와 부인이 자본을 대주자 아이가 더욱 노력(A)하여 부자(D)가 되었다는 것은, 상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노력의 동기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15. 정답 ③

(나)에서 글쓰이는 눈동자가 빛나는 아이에게 부모와 스승이 기대를 걸고 지원하면(피그말리온 효과) 재상이 되고, 콧구멍이 드러난 아이를 방치하면(낙인 효과) 실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변의 평가와 환경(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이 개인의 행동(익힘)을 유도하고 결과를 만든다는 논리와 정확히 상통한다.

- ① 글쓰이는 관상 때문이 아니라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되는 과정(노력/익힘)을 강조했다.
- ② **[매력적인 오답]** 글쓰이는 악을 익혀서 패망하는 것이지, 본성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④ <보기>는 타인의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내면이나 외모의 변화보다는 성취나 행동

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

- ⑤ 글쓰이 역시 타인의 평가(대우)가 아이의 노력 여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치되지 않는다.